

문현동 목공골목 변화의 바람

부산 유일 목공 밀집지역

지원사업 통해 현대화 추진

쇠락하던 문현동 목공골목이 최근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목공골목은 문현동 서동중학교 부근에 자리 잡은 전통 목공소 밀집지역을 일컫는다. 사실상 부산 유일의 목공소 밀집지역이다. 30년 전 나무 문짝을 만드는 업소들이 하나둘 모여 형성됐다. 전성기 때는 10개 업체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기도 했지만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플라스틱 문짝이 보급되면서 지금은 5곳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목공골목 일원에서 40년 간 장사

했다는 서광창호 허종호 사장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직원 5명을 둘 만큼 일감이 많았는데 재개발 등으로 단독주택이 없어지고 집수리를 안 하는 통에 일이 전성기 대비 80~90%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에는 목공골목 5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연말까지 낡은 목공소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개선했다. 간판과 노후 벽면을 정비하고 건물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디자인을 입할 계획이다. 옹벽에는 골목 스토리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과 테마공간을 꾸며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한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업체 등록과 점포별 홈페이지 제작을 마치고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홍보마케팅도



목공골목에서 40년 간 전통문을 만들어 왔다는 서광창호의 허종호 사장이 목공작업을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목공골목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인사이트컨설팅 고명환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낡은 목공소 이미지를 개선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30년 넘게 전통

문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의 기술을 보존하고 부산의 전통도 지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구 2018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부산 최우수

남구가 꾸준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행정안전부가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정부합동평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등 11개 분야 106개 세부지표의 실적을 대상으로 온라인평가와 현지 확인·검증 등을 거쳐 확정됐다.

행정 전 분야의 업무수행 성과를 가늠하는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일반

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규제개혁, 중점과제 7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우수구 선정으로 남구는 재정 인센티브 8000만원과 포상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

하나금융, 남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어 준다



남구와 지원사업 협약… 규모·지원방식 등은 상호협의

국내 최대 금융그룹 중 한 곳인 하나금융그룹이 남구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한다.

남구는 지난 9월 28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남구

가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상지 선정, 지원방법 및 규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결정하기로 했다.

자선 339조원의 국내 최대 은행인 KEB하나은행을 소유한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 90곳을 건립할 계획이다.

“남구 주민 우선 채용 부탁드립니다”

남구청 일자리추진단, PPG코리아·동국제강 현장 방문

남구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내 유망기업 현장방문행사를 가졌다.

남구는 박재범 구청장을 포함한 일자리추진단을 꾸려 지난 22일 용당동 PPG코리아와 감만동 동국제강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력 채용이 있을 경우 남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업원 304명의 PPG코리아는 미

국에 본사를 둔 130년 전통의 도료 및 유리·특수화학제품 제조기업으로 2013년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화학분야 3위를 기록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이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이끌어 온 동국제강은 종업원 801명이 근무하는 관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체이다.

이달의 친절공무원

용호1동 안혜진 주무관

△본인은 눈이 침침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는데 친절히 대할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너무 친절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공무원상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절해서 내내 기분이 좋았고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음.

△친절한 응대,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투.개표시스템 이용하세요”

남구선관위, PC·스마트폰 이용한 투표시스템 민간에 지원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중두)는 아파트 등 민간 투표에 적합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학교,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산출 선거, 의사결정 및 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투표 직후 바로 개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남구선관위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타 아파트 등에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635-1390

부경대 용당캠퍼스 공대 이전 완료

대연캠퍼스로 모두 옮겨

부경대는 용당캠퍼스 내 공과대학의 대연캠퍼스 이전 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이로써 용당캠퍼스 33만㎡ 부지를 기업에 통째로 개방해 산학협력 및 창업 특화 플랫폼 ‘드래곤밸리’로 특성과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현재 용당캠퍼스는 대규모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인 LINC+사업을 비롯,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산학연연구단지(URP), 부산연구개발특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연구마을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미 280여 기업이 입주해 연간 67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9월 28일) 안내

○모든 도로에서 전차석 안전띠 착용 : 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 알코올 0.05%↑ 3만원, 측정 불응 10만원 범칙금

○경차주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 범칙금 4만원 (승차 기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처벌 없음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대 상 : 2018. 1. 1. ~ 6.30. 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된 토지
-기 간 : 2018. 10. 31. ~ 11. 30.
-장 소 : 남구청 홈페이지

-내 용 :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기 간 : 2018. 10. 31. ~ 11. 30.
-제출처 : 남구청 토지관리과(☎607-4752~5)
-제출자 : 토지소유자 등
-방 법 : 홈페이지, 구·동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27일 오후8시 부산불꽃축제

불꽃감상 뒤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 갑시다

제14회 부산불꽃축제가 10월 27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이날 남구에선 용호관유람선터미널~동생말~이기대 해안길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꽃축제 이후 발생한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각자의 집으로 되가져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불꽃축제 이후 전혀 다른 시민의식을 보여준 한국과 일본을 조명한 조선일보 10월 8일 기사.

‘환경관리원’으로 불러주세요

남구, 공직 내 차별적 직명 개정

환경미화원 호칭 바뀌

‘도로관리원’ 개칭은 불발

민선7기 슬로건 ‘사람이 희망이다’에 걸맞게 남구가 조직 내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남구는 지난 8월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청소부’ 등으로 불리던 공무원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관리원’으로 전격 변경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간 사용되어 온 환경미화원이란 호칭에 업무 담당자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는데다,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되는 환경관리원의 위상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직명

을 바꿨다.

환경관리원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 뿐 아니라 불법 투기 단속, 배출요령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펼치는 등 전문성과 사명감이 강조되는 직무이다. 남구의 이번 호칭 개정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남구는 같은 이유로 도로보수원의 명칭을 ‘도로관리원’으로 고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불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보수원을 도로관리원으로 바꿀 경우 종래 도로관리원과 행정업무상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현재 관내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남구 소속 도로보수원은 모두 18명이다.

사진으로 보는 남구 소식



민원담당직원 힐링 프로그램

남구는 지난 9월 28일 부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민원담당직원 48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친철행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30혁신아이디어+팀 발족

남구는 지난 9월 18일 젊은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2030 혁신아이디어+팀 발족식을 갖고 특목 특는 아이디어로 정부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분포 '똥글장터' 성황

지난 3일 주민 2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분포 똥글장터'가 열려 자원 재사용을 통한 환경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34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

제34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가 주민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참가자들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시작으로 이기대순환도로 해파랑길안내소~백운포체육공원까지 6km를 걸었다.



오륙도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의 2018 정기연주회가 지난 2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단원들의 열창과 난타공연 등 역동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